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318

청소년NEWS

미래의 동량 청소년들의 희망을 담는다



1318.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이다.

“13~18세의 청소년은 ‘학생’의 신분이면서, 질풍노도의 삶을 사는 지역의 미래다”

지방화시대 부응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고성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

고성군청소년수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권익증진 및 의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화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고성 관내 학교별 추천대상자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연간 3회 이상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축제 운영

활동인 축제부스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연계, 청소년 도보 캠프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청소년프로그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청소년수련시설 개선방안 논의 등의 종합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 평가회를 개최하고 다음해의 사업 계획안을 논의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이영주 위원장(고성고 2년, 여)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자치활동이 청소년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혜자들의 정책들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



청소년참여위원회 참가 학생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

는 의사와 욕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회원들과 마음을 모

아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향토인재 양성 산실 초계학생수련관

바른 인성 함양하는 체험학습 ‘호평’

농·산·어촌 및 접적지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장이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거진읍 대대리에 위치한 초계학생수련관은 고성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전신인 초계초등학교(1938년~1995년)가 폐교가 되면서 1995년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인가를 받아 1996년부터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초계학생수련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향토인재 양성의 소중한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소집단 편성 운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동·봉

사정신과 지도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다.

초계학생수련관은 시청각실, 과학실험실, 영재교육실(다목적실)을 비롯해 교육정보자료실, 교수학습도움센터, 발명교실, 방갈로 등 7동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조리실, 사무실도 꾸며져 있다.

초계학생수련관은 상설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40명의 수학·과학 영재교육 및 20명의 발명교실을 담당교사들의 지도아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속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명교실은 강원도에 있는 8개 발명교실 중에 최초로 건립돼 초·중등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발명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발명교육

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명교실을 운영해 발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급별로 연간 1회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현장탐방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방갈로를 이용한 1박2일 체험학습과 과학캠프, 영재캠프, 사랑캠프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초계학생수련관 관계자는 “지적학습의 편중으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심리적갈등과 정서불안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해 자연의 고마움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바른 인성형성에 큰 도움이



초계학생수련관이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위는 초계학생수련관 전경. 아래는 체험학습 모습.

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학생들에게 지·

덕·체를 갖춘 전인교육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